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결승전이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치러졌다. 광일리그 우승을 차지한 금호 허리케인(왼쪽·감독 고상석)과 무등리그 우승팀 무등산생태요양병원(감독 김선도)이 행가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호 허리케인·무등산생태요양병원 “野好! 우승이다”

〈광일리그〉

〈무등리그〉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개월 대장정 마무리

금호 허리케인, 시니어스 17-6 제압... 무등산생태요양병원, 페가수스 잡고 2연패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가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결승전이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치러졌다. 금호 허리케인과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이 각각 광일리그와 무등리그 정상을 밟으며 '가을잔치'의 주인공이 됐다.

금호 허리케인은 시니어스와 광일리그 결승에서 17-6 승리를 거두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초반에는 팽팽한 흐름이었다. 1-2로 뒤진 2회초 금호 허리케인이 2점을 뽐으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시니어스 중견수 장병찬의 호수비와 포수 임진강의 도루저지로 추가점을 내는 데 실패했다. 3루수 고남석이 공수에서 활약을 하며 흐름을 바꿨다. 3회 무사 1-3루에서 1루에 있던 고남석이 도루를 시도했고, 포수의 송구가 뒤로 빠

지면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이어 폭투와 상대 3루수의 실책 등으로 6-2까지 점수를 벌이는 데 성공했다. 고남석은 4회말에는 까다로운 파울 플레이 타구를 처리하는 등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금호 허리케인은 5회 정중종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더해 대거 6점을 뽐는 데 성공하면서 승기를 굳혔다.

무등리그 결승은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나올 때까지 우승컵의 향방을 알 수 없는 대접전이었다.

지난해 우승팀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이 3-0으로 앞선 3회 실책으로 어려움 흐름을 맞았다. 3-3까지 쫓긴 상황에서 페가수스의 이석우에게 역전타를 허용하면서 3-5로 승부가 뒤집어졌다. 3회 5실점을 했던 선발 김건국이 차분하게 4-5회를 막으면서 무등산생태요양병원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6회 선두타자 이병석이 불

넷으로 나간 뒤 도루 실패로 돌아섰지만 2사에서 박종산의 내야안타가 나왔다. 홍산신의 몸에 맞는 볼에 이어 폭투로 2사 2-3루, 볼넷으로 만루가 채워졌고 이대수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좌중간을 가르는 싸늘이 안타를 때려내면서 재역전극을 연출했다.

페가수스 선발 김상호가 마지막 7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지고 내려간 뒤 7회말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의 김건국도 7번째 이닝을 맞았다. 직접 땅볼 타구를 처리한 김건국이 헛스윌 삼진을 잡으며 우승에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이 나왔고 대주자 안범모가 2루를 홈치는 데 성공했다. 안타 하나면 동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2루 주자가 다시 3루로 뛰어들었고, 이번에는 발보다 공이 먼저 베이스에 도착하면서 경기는 6-5,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대회 2연패로 끝이 났다.

◆무등기 결승 전적

◇광일리그
 금호 허리케인 1232603-17
 시니어스 2010102-6

▲승리투수:이정현

◇무등리그
 무등산생태요양병원 0120030-6
 페가수스 0050000-5

▲승리투수:김건국

대회를 지원한 아로마라이프의 이학재 회장은 시상식에서 "우승, 준우승을 떠나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다. 이게 사회인 야구의 묘미가 아닌가 한다. 좋은 경기를 펼쳐 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성공적인 대회 폐막을 기념했다.

한편 아로마라이프가 함께한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 주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전라남도생활체육회·KIA 타이거즈 후원으로 치러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준 높은 플레이·명승부 무등기야구 인기 높아졌죠”

대회 운영 총괄 이영현 사무국장



“수준 높은 플레이와 명승부 속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인들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대회 운영을 총괄한 이영현(46) 사무국장은 “매년 사회인 야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천취소 없이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큰 사고 없이 대회가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올해로 5번째 축제가 진행되면서 무등기 인기도 높아졌다.

이 사무국장은 “대회가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참가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마감이었다. 무등기를 뛰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팀들이 많았다”며 “더 많은 팀이 함께하지 못 한 게 아쉽다”고 언급했다.

또 “큰 사고는 없었지만 올해는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 건강하게 야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경기 전에 스트레칭도 하고 몸관리를 잘해서 부상 없이 사회인 야구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울기자 wool@

무등기 야구 우승 감독·MVP 인터뷰

고상석 금호 허리케인 감독 “무패행진 오히려 부담 ‘2전 3기’ 우승 기뻐요”

“세 번째 도전 끝에 이룬 우승이라 더욱 기쁩니다.”

금호 허리케인이 세 번의 도전 끝에 무등기 정상에 섰다.

팀 우승을 지원한 고상석(46) 감독은 “앞서 무등기에서는 1회전에서 탈락했다. 올해도 처음부터 강자를 만나 쉽지 않았는데 어렵게 결승까지 왔다. 부상도 있었고, 가족 행사들도 있어서 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다. 경기를 거듭하면서 팀이 더 끈끈해졌고 우승을 이루게 됐다”고 소감을 언급했다.

올 시즌 정규리그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금호 허리케인. 그래서 결승전에 대한 부담감도 컸다.

고 감독은 “패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선수들이 뭉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무등기 무대를 마련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일리그 MVP 이정현 “믿음 준 동료·믿어준 가족에 감사 무등기, 더 큰 대회로 발전했으면”



“동료들을 믿고 편하게 공을 던졌습니다.”

금호 허리케인의 이정현(44)이 결승전 승리를 책임지면서 광일리그 최우수선수 영예를 안았다.

이정현은 “우리 팀이 타격을 잘하지만 수비도 좋다. 야수들을 믿고 조금씩 하지 않고 편하게 공을 던질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좋은 대회를 주최해주신 광주일보와 아로마라이프, 광주시야구협회 등에 감사 드린다. 무등기가 더 큰 대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우승과 함께 상까지 받게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동료들 덕에 우승을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야구를 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와이프가 있어서 최우수 선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와이프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웃었다.

김선도 무등산생태요양병원 감독 “극적인 우승 잊을 수 없어 사회인 야구 발전 힘쓸 것”

“극적인 우승이라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경기를 해 준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김선도(39) 감독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결승전이다.

김 감독은 “3회 실책이 나오면서 어려운 경기였다. 위기가 있었지만 집중해서 끝까지 잘 해보려고 했다. 잊을 수 없는 결승전이 된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장호직 구단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무등기 정상을 밟게 된 무등산생태요양병원.

김 감독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활발한 활동과 참가로 사회인 야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무등기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됐는데 내년 3연패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무등리그 MVP 장병웅 “주전 아닌 ‘주전자’라 주는 상인듯... 팀 3연패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대회 3연패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의 장병웅(33)이 무등리그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그는 “나는 주전이 아니라 주전자 역할을 했는데 선수들 매니저로서 활약하면서 팀 우승에 기여했다고 해서 큰 상을 주신 것 같다”며 “기분 좋게 우승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또 “2009년 KIA가 우승을 할 때 야구를 더 즐겁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사회인 야구를 시작하게 됐다. 실수를 하고 실책을 하기도 하는데 서로 다독이면서 운동을 하고, 끝나면 술 한잔하는 게 사회인 야구의 매력인 것 같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또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팀이 3연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